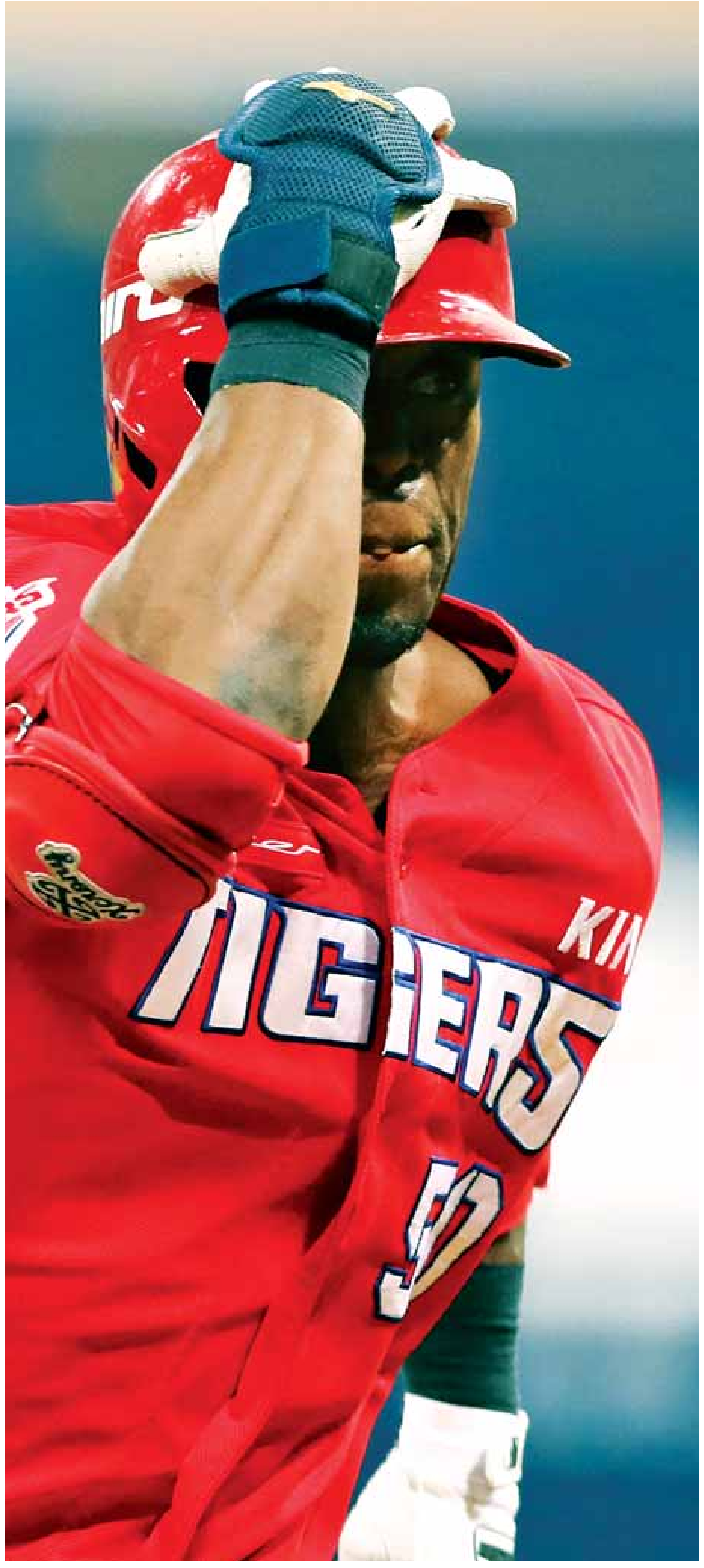
버나디나 "우승하고 싶다"



지난 18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17 타이어뱅크 KBO리그' 넥센 히어로즈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에서 KIA 3번 버나디나가 3-3으로 맞선 연장 10회초 1사에서 비거리 130m 중월 솔로홈런을 날리고 세레모니를 펼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시즌 초반 '천덕꾸러기'…감독 굳건한 믿음

방망이 살아나고 특급 수비…"만족은 없다"

'만족'없는 버나디나의 뜨거운 질주가 계속된다.

버나디나는 KIA 타이거즈의 2017시즌 '반전의 아이콘'이다.

버나디나는 빠른 발과 시원한 스윙, 메이저리그에서도 검증받은 수비 실력을 바탕으로 KIA의 톱타자 고민을 풀어줄 적임자로 꼽혔다. 하지만 시즌 초반 그는 '천덕꾸러기'였다.

변화구에 헛방망이질이 계속되면서 머쓱하게 벤치로 돌아가기 일쑤였다. 처음 한 달 버나디나는 98타수 25안타로 0.255의 타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9개의 도루는 만들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출루율과 3번 김주찬의 부진이 겹치면서 톱타자 고민 속에 KIA의 봄날이 흘러갔다.

그러나 김기태 감독은 고집스럽게 버나디나를 1번에 세웠고 반전의 무대가 전개됐다.

시원하게 버나디나의 방망이가 돌아가면서 KIA의 타선도 함께 춤을 췄다. 매일 타율을 끌어올린 그는 3번 자리로 이동, 0.314의 타율로 전반기를 마감했다. 15개의 홈런으로 64타점도 수확했다. 외야에서는 '샤크'라는 애칭에 어울리게 공을 낚아채면서 특급 수비 실력도 보여줬다.

그런데도 '만족'없는 버나디나다.

'전반기 만족 스러웠던 점'을 꼽아주라는 질문에 " 팀이 1등을 했다는 것은 만족스럽다"며 입을 연 버나디나는 "팀 승리에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기쁘지만 스스로에겐 만족은 어려운 단어인 것 같다. 더 노력해서 나중에 시즌이 끝난 뒤 만족에 관련한 인터뷰를 하겠다. 매일매일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만족 대신 최선을 이야기한 버나디나에게 '찜통더위'라는 혹독하고 낯선 환경은 큰 문제가 아니다.

버나디나는 "타격, 캐치볼 훈련 등을 조절하면서 체력을 관리하고 있다. 힘들지 않다. 남은 두 달 정도는 전력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다. 두 달은 정말 빨리 갈 것이다"며 후반기 출발을 반겼다.

그리고 버나디나는 후반기 첫 경기에서 주인공이 됐다.

18일 넥센 히어로즈를 상대로 고척스카이돔에서 후반기 스타트를 끊었던 KIA는 이날 10회 연장 승부 끝에 4-3 승리를 거뒀다. 결승타는 버나디나가 책임졌다.

1-2로 뒤진 상황에서 KIA의 정규이닝 마지막 공격이 진행됐다. 나지완이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원 아웃. 옆구리 부상에서 복귀한 안치홍이 우전 안타로 희망의 불씨를 살렸다. 그리고 이범호가 김상수를 상대로 시원하게 좌측담장을 넘기며 3-2로 경기를 뒤집었다.

여기에서 끝나지는 않았다. 9회말 마무리로 출격한 김윤동이 박정음에게 동점 홈런을 허용하면서 경기는 연장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10회 1사에서 재역전을 알리는 버나디나의 시즌 16호포가 터졌고, 관중석의 KIA 팬들과 덕아웃의 동료들은 머리를 붙잡은 '헬멧 세러모니'로 홈런타자 버나디나를 반겼다. 이후 김윤동이 10회말을 깔끔하게 막으면서 버나디나의 결승타가 기록됐다.

버나디나는 "한국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전반기 좋았던 것들 유지하면서 지금처럼 팬들의 응원을 받으며 우승을 이루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2일 러브투게더 데이

KIA 타이거즈가 22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경기에서 2017시즌 제2회 타이거즈 러브투게더 데이를 연다.

'타이거즈 러브투게더'는 KIA 타이거즈와 기아자동차가 함께 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경기 기록에 따라 KIA 선수와 구단 임직원, 기아차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기부금을 매월 적립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KIA와 기아자동차는 지난해 '타이거즈 러브투게더'를 통해 적립한 기금(3억6900만원) 중 일부인 4200만원을 광주장애인 복지관 야구동아리(ET야구단)와 안산 다문화 야구동아리(와글와글 야구단)에 지원금으로 전달한다.

경기 시구는 ET야구단 전용준 군이 하고, 시타는 러브투게더 우수 참여 직원인 최형규 영업차장(제주남원지점)이 맡는다.

또 선수단은 특별 제작한 '러브투게더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선다. 경기에 앞서 꿈나무 선수들에게 사인 유니폼을 전달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아이스하키 공개 훈련 백지선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감독이 19일 오전 서울 태릉선수촌 빙상장에서 열린 아이스하키 대표팀 미디어데이 공개훈련에서 선수들에게 지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ML 코리안리거 소식

류현진 다음주 미네소타전 복귀

전반기 막판 왼발 부상으로 부상자명단(DL)에 올랐던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미네소타 트윈스와 홈 3연전 중 선발진에 복귀할 전망이다.

다저스 구단을 취재하는 빌 플렁킷 오렌지카운티레지스터 기자는 19일(한국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류현진이 월요일 또는 화요일(한국 날짜 25일 또는 26일) 선발 로테이션에 재진입한다"는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의 말을 전했다.

로버츠 감독이 언급한 류현진의 등판 예정일은 다저 스타디움에서 미네소타 트윈스와 인터리그 경기가 잡혀 있다.

2013년 빅리그에 데뷔한 류현진은 한 번도 미네소타전에 등판하지 않았다.

류현진은 지난달 29일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전에서 4회 안드렐톤 시몬스의 타구에 맞았고, 5일에는 10일짜리 DL에 이름을 올렸다.

애초 큰 부상이 아니라 휴식과 팀 로스터 재정비 차원에서 DL에 등재됐던 류현진은 지난 15일에는 4이닝 투구 수 58개의 시뮬레이션 투구를 무사히 마쳤다.

전반기 류현진은 14경기에서 72.2이닝을 던져 3승 6패 1세이브에 69탈삼진, 평균자책점 4.21의 성적을 남겼다.

다저스는 브랜던 매카시-알렉스 우드-리치 힐-클레이턴 커쇼-마에다 겐타 순으로 후반기 선발 로테이션을 운영한다.

부상에서 돌아온 류현진은 다시 '도전자' 신분으로 선발 로테이션 재진입을 노린다. /연합뉴스

추신수 13호포…팀 영패 막아

'추추 트레인'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가 시즌 13번째 홈런을 쏘아 올리고 팀의 영패를 막았다.

추신수는 19일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방문 경기에서 1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1회 상대 우완 선발 투수 딜런 번디의 시속 145㎞짜리 2구째 높은 속구를 퍼 올려 좌중간 담을 넘어가는 선두타자 솔로포를 터뜨렸다.

추신수의 홈런은 지난달 26일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 이래 23일 만에 나온 시즌 13호다. 추신수의 시즌 타점은 44개로 늘었다.

이 홈런으로 점수를 뽑았을 뿐 텍사스는 홈런 4방을 포함한 안타 16개를 내줘 1-12로 크게 진 바람에 3연패에 빠졌다.

추신수는 이후 안타 1개를 보태 4타수 2안타를 치고 시즌 20번째 멀티히트(한 경기 안타 2개 이상)를 달성했다. 그의 시즌 타율은 0.248(307타수 76안타)로 올랐다.

2회 2사 만루에서 아쉽게 2루 땅볼로 물러난 추신수는 5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깨끗한 우전 안타를 날렸지만, 후속 엘비스 안드루스의 병살타 때 2루에서 잡혔다.

텍사스는 1회 말 6점을 내주고 주도권을 상실했다.

요나탄 스호프에게 2타점 2루타, 크리스 데이비스와 트레이 맨시니에게 징검다리 투런포를 얻어맞아 6실점 했다.

텍사스는 1-6이던 4회 데이비스에게 다시 우중월 만루포를 허용하고 사실상 흰 수건을 던졌다. /연합뉴스

야구 꿈나무 '어깨'를 지켜라

내년부터 유소년 투구수 제한 등 실시

유소년 야구선수의 혹사를 막기 위한 투구 수 제한 정책을 내년부터 현장에서 실시한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18일 오후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이사회를 열어 초·중·고 투구 수 제한, 연속일 투구 금지, 의무 휴식일 권고 등의 선수 보호책을 정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고교야구 선수는 하루에 최대 105개만 던질 수 있다. 중학부는 4이닝, 초등부는 3이닝의 이닝 제한이 있다.

투구 수에 따른 의무 휴식일도 생겼다. 초등부와 중학부는 60개 이상 던지면 반드시 하루 쉬어야 한다. 고교부는 31~45개(1일), 46~60개(2일), 61~75개(3일), 76개 이상(4일)으로 투구 수에 따라 세분화해 휴식일을 정했다.

초등부와 중학부는 3일 연투를 금지하며, 이틀 연속 투수로 출전할 수도 없다. 초등부는 연이틀 포수 출전도 금지한다.

또한, 2016년부터 2년간 일시적으로 허용한 전국중학야구 지명타자제를 폐지하며, 고등부 금속 배트 전환은 TF팀에서 지속해 연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커쇼 7이닝 무실점 15승…LA 10연승

시카고에 1-0 영봉승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에이스 클레이턴 커쇼의 역투를 앞세워 거침없이 10연승을 질주했다.

다저스는 19일 메이저리그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방문 경기에서 커쇼-페드로 바에스(8회)-켄리 얀선(9회)으로 이어지는 철벽 마운드로 1-0 승리를 따냈다.

지난달 10연승을 한 데 이어 시즌 두 번째 10연승이다.

부동의 에이스 커쇼는 7이닝 동안 안타 7개를 내줬으나 삼진 7개를 솎아내며 시즌 15승(2패)으로 내셔널리그 다승 1위를 질주했다.

커쇼는 평균자책점도 2.07로 낮춰 리그 1위 도약을 눈앞에 뒀다. 현재 1위는 워싱턴 내셔널스의 에이스 맥스 셔저(2.01)다.

다저스는 1회 크리스 테일러의 안타, 코리 시거의 볼넷으로 만든 1사 1·2루에서 코디 벨린저의 중전 적시타로 이날 양 팀의 유일한 득점이자 결승점을 얻었다. 다저스 막강 방패인 바에스와 얀선은 각각 1이닝을 완벽하게 책임지며 1점 차 짜릿한 승리를 지켰다.

10연승을 올린 다저스는 65승 29패라는 압도적인 승률(0.691)로 리그 서부지구 1위를 굳게 지켰다.

다저스는 지난달 8일 워싱턴 내셔널스전 2-1 승리 이후 30승 4패라는 엄청난 승률 행진을 벌여 43년 만에 한 시즌 100승 돌파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